

# 광주 향토기업, 인천국제공항에 면세점 개설

시티플러스, 지난해 사업권 획득

중소론 처음...5개 매장 운영

3월 지자체 명물관 개설도

광주의 한 향토기업이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개설에 성공했다.

호텔신라와 롯데 등 대기업만의 무대였던 면세점 시장에 광주지역 기업 최초이자 중소기업으로서 1호로 매장을 열었다.

주인공은 광주를 연고로 한 (주)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시티면세점이다. 이 면세점은 지난해 3월 중소·중견기업 몫의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뒤, 인천국제공항 서편(30번GATE 주변) 구역에서 화장품과 주류, 잡화 등 5개 매장을 열고 운영 중이다.

특히 이 면세점이 눈길을 끄는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의 '아임쇼핑' 매장으로 여행객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 화장품, 향수 등 면세점의 주종을 차지하는 제품과 함께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작지만 강한 제품을 핵심 상품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시티플러스는 최고의 명품에 치중하기 보다는 면세점 인기 품목을 기본으로 하



인천국제공항에서 화장품, 주류, 잡화 등 5개 매장을 운영 중인 시티면세점. 오른쪽은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아임쇼핑' 매장. <뉴스시티플러스 제공>

되, 세계 어디에도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중기 제품은 명품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든 점을 감안, 매출 추이나 인기도에 따라 수시로 품목을 교체하는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월에는 광주·전남 등 전국의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명물이나 토산품을 취급하는 지자체 명물관을 열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이라는 시티플러스의 정체성을 감안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바탕으로 상생 프로그램이다.

광주 김치, 강릉 유과, 해남 옥공예품 등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 특산품의 경우는 가격 경쟁력과 지역 이미지에 치중한 나머지 디자인이나 포장이 뒤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중이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 3곳과 시티플러스를 포함한 SM 등 중견기업 4곳이 면세점을 운영중이다. 중견기업 면세점 중 전 품목을 취급하는 SM면세점이 컨소시엄으로 운영중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과 독자적으로 경쟁하는 중소

기업은 시티플러스가 유일하다.

시티면세점 안혜진(여·52)대표는 "초기 투자자본이 막대해 중소기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기업의 탄탄한 자본력과 순발력있는 자체 기획으로 빠르게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수학교사 출신의 이색 이력을 가진 안 대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과 같은 외국 유명인사들이 꼭 한번은 찾는 면세점, 중소기업 면세점이지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민 면세점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18기록관·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공동

## 세계기록유산 '달빛 학술토론회'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관장 나간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신동학)와 '세계기록유산 달빛(광주-대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장관(한국학중앙연구원 고등연구소 석좌교수)이 '5·18민주화운동기록물과 국제보상운동기록물의 세계적 가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엄창욱 경북대 교수가 '국제보상운동기록물의 세계사적 의미'를, 안종철 박사(전 광주시인권유부즈맨)가 '5·18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과정과 의의'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조오섭 광주시의원, 김해정 대구시의원, 이덕재 4·19혁명 유네스코등재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참여한다.

학술토론회를 마치고 기록관과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향후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 상호 협력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기록관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원하고, 세계기록유산 교류 전시회, 교류활동을 정례화하게 된다.

기록관은 앞으로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 기관과 5·18정신전국화를 위한 교류 전시회 등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북구 '직장 어린이집' 10월에 문 연다

광주지역 자치구 중 처음

광주시 북구는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직장 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24일 밝혔다. 북구 직장 어린이집은 북구청 교통과 효죽공영주차장에 지상 4층 규모로 증축되는 건물 1층(464㎡)에 자리하게 된다.

북구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출·퇴근하고 휴식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돌보는 등 보육의 질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착공에 들어가 9월 준공된다.

이후 북구는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10월께 개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올해부터 여성 일자리를 늘리고 직장생활의 편의를 위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기관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직장 어린이집 조성으로 보육의 질과 업무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도 직원복지는 물론 저출산 해소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10-122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市보건환경연, 설맞이 축산물 위생검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육류 최대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2주간을 '축산물 위생검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물 검사를 강화한다.

이 기간에는 미생물·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하는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축산물 수급 공급을 위해 명절 전 공휴일인 2월7일에도 도축장을 개장토록 하고, 도축 물량에 따라 도축검사관을 보강하며 검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한다.

특히, 최근 전북지역 돼지 사육농가에 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지역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은 철저히 차단하고, 도축장 출입 차량 소독을 강화하는 등 구제역 방역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우 둔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쇠고기 이력 검사와 한우·젓소 감별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소장은 "최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축산 농가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의 첫 관문인 도축장 도축 검사와 작업장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리듬체조 선수단 전지훈련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체조경기장으로 사용된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 2016년도 리듬체조 국가대표 상비군의 동계 훈련 열기로 가득했다. 국가대표상비군 리듬체조 선수단(감독 이경희, 코치 박혜영) 12명이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 광주소방 "비응급환자 병원 이송 거절...진료 안받으면 과태료 부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응급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송을 거절한다. 또 비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뒤에 진료를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응급환자를 신

속히 이송하기 위해 증상이 경미하거나 검진·입원 목적으로 이송을 요청한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우 이

송을 거절하고, 비응급환자가 병원 이송을 계속 요구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단시간 도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응급실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근술 구조구급과장은 "비응급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비응급상황에서의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NPL매 •NPL중개 •NPL질권대출 •경락잔금대출 •NPL등기업무

### NPL 질권대출 전국 특판공지

국내 최저금리!! 최대 한도!! 제이앤와이도시개발에서로 업계 최고의조건으로 질권대출을 안내합니다.

대출항목	아파트	주택	토지,상가,공장,숙박,사우나등
대출금리	3.8~5.5%	4.0~5.5%	5.5~6.5%
대출조건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전국 ~90%한도까지 개인신용등급 및 소득에 따라 차등	(혹은 7.0%)
중도	중도 무	중도 무	중도 무
취급	취급 무	취급 무	취급 무
한도약정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한도약정 무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